

## 私學 放談

全 智 湧

(朝鮮大 史學科)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조직이 있는 곳에 갈등과 진통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서구의 産業化 과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짧은 時間 속에서 그러한 産業化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갈등과 진통이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人爲的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따라서 해결책도 人間的인 측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던 본인의 망설임도 이러한 우리들—어쩌면 일부 大學들 뿐일런지는 모르지만—주변의 이야기들 속에서 돌고자 한다.

우리나라 大學 經營者들의 類型을 크게 分類한다면, 교육적인 사명에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私學의 경영에 뛰어난 자들과 단순히 社會的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제도적인 면을 통하여 상당한 利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자들로 三分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資金이 풍족한 자들과 그러하지 못한 자들로 대체로 二分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조합한다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財政的 이유 등으로 하여 私學이 우

리나라 교육의 거의 77%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區分 자체는 그리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人間的이고 動的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더욱 표출되고 문제의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政府의 개발 정책은 주로 낮은 임금과 각종의 장려책 그리고 축적된 자본의 再投資 등을 통한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것은 大衆의 불만이 점증할 것이라는 측면이 예견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行政을 담당했다라도 그도 現實과는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政策 判斷에 대하여 論爭을 할 의사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그들이 어떤 判斷을 내렸거나간에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意志가 있었는가, 또 그것이 단순히 구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진 정도의 여부 그리고 점증하는 불만에 얼마나 合理的으로 對應하였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私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만나고 있는 문제들도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人間的이고 動的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라는 바로 이러한 思考 속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지한 교육적 使命感과 풍족한 資金을 가졌을 경우는 例外이

겠으나,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그가 私學 經營의 과정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애로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 것인가 하는 점과 그 극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될 人間的인 측면에서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왔을 것인가 하는 점은 물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체로 상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문제들에 가장 손쉽고 단순한 방법을 택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은 언제나 음성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政治 變化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때문에 經營者들과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쪽 모두가 '教育'이 서야 할 자리를 박탈하고 '政治'에의 종속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禮가 分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傳家의 寶刀처럼 사용해 왔었던 '政治의 方法'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한 집 안의 살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私學과 국가의 財政이나 經營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私學 經營者들의 人間的이고 倫理的인 측면에서의 자세가 문제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80년의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 執權者들은 좀더 진지한 自己 省察이 있어야만 했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不利益과 희생 위에서 私學이 성장해 왔다면 마땅히 私學의 經營者들도 분명한 自己 省察이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그들의 태도가 오늘의 진통과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財政이나 經營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認識되어야 한다. 非現貨의이고 환상적인 요구 사항들은 多數에게 언제나 환멸만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 설사 그들이 經營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들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곧 쉬운 方法을 택할 것이며—쉬운 방법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쉬운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따라서 스스로 옛 주장들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權威란 本人 자신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함께 그것이 社會的으로 認識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千里馬도 百樂이 있어야 비로소 存在한다고는 하지만 社會的인 認識은 무조건으로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속으로부터의 탈피가 民主化라면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民主化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政治'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고들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로부터의 保護를 요청해 왔었던, 즉 홀로 서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겠는가? 동시에 우리들 모두의 意識 構造는 성공의 척도를 政治에서 찾고자 하고 窟 費를 五福의 으뜸으로 간주하며 勢力의 확보를 權威의 확보로 취급하는 前近代的인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설사 우리가 아직도 前近代的인 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二分法式으로 매도만 할 것은 아니다. 만하임(K. Mannheim)의 표현처럼 保守와 革新은 같은 뿌리를 가진 것이고 종이의 앞 뒤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은 마르쿠제(H. Marcuse)의 '오이디프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私學에 관한 이러한 一般論的인 이야기들이 지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깊은 自己 省察과 反省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문제를 '政治的'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